

호남, 현대 이어 KP케미칼까지...

Olefin · BTX 보강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Polyester 영향력 확대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인수를 통해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2003년 6월 LG화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해 Olefin 사업을 강화한 데 이어 2004년 1월12일 KP케미칼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BTX 사업까지 한층 보강할 수 있게 됐다.

1월13일 호남석유화학 고위 관계자는 “KP케미칼을 인수하게 되면 부진했던 BTX 사업이 강화되고 KP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Global Network까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은 자체 해외지사가 없이 롯데상사를 중심으로 해외 장기계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Local 수출하고 있어 KP케미칼을 인수한다면 기존 KP케미칼의 영업망으로 수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KP케미칼 인수의 궁극적 취지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KP케미칼은 일본의 오사카, 홍콩, 중국의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4곳의 지사 등을 통해 생산량의 93%를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PET용 수지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는 등 매출액의 70% 가량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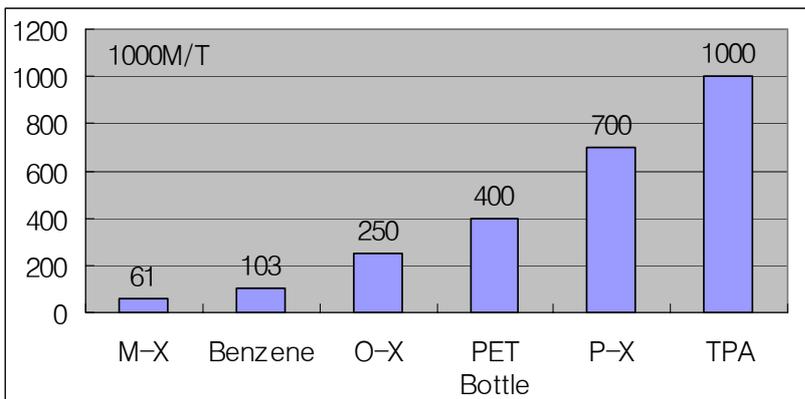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현대석유화학의 2단지 인수 가능성을 드러냈으며, 해외영업팀 분리 시 현대의 해외지점 인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대산의 제2단지 인수는 안전으로 상정돼 있으나 LG화학과의 협의가 남아 있으며, 해외지사 인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P케미칼 매각은 정밀 실사 후 협상을 통해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KP케미칼은 P-X(Para-Xylene), M-X(Meta-Xylene), O-X(Ortho-Xylene)를 비롯해 PTA(Terephthalic Acid) 및 Bottle용 PET(Polyethylene)를 생산하고 있다.

KP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특히, TPA는 한해 생산규모 100만톤으로 국내 3위이며, O-X는 SK와 함께 과점을, Bottle용 PET는 국내시장의 34.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호남석유화학 인수에 확정된 현대석유화학은 화학섬유 원료인 EG(Ethylene Glycol) 생산능력이 77만5000톤에 달해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하고 현대의 EG 사업까지 보유한다면 NCC

를 소유한 국내 유일의 화섬원료 생산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원료 공급의 안정성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14>